

2023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출장보고서

2023. 6. 8

KDI 경제전망실

1 출장 목적

- 2023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에 참석하여 KDI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, 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함.

2 출장 개요

- 출장지 및 기간
 - 출장지: 캐나다 위니펙
 - 출장기간: '23년 5월 31일(수) ~ 6월 4일(일)
- 출장자 (총 1명)

소속	성명	직위
KDI 경제전망실	김지연	부연구위원

3 출장 일정

일자	주요일정(안)
5.31(수)	[출국] 인천(19:05 출발) → 위니펙(22:40 도착)
6.1(목)	[CEA 2023 참석] 세션 참가 및 발표준비
6.2(금)	[CEA 2023 참석] 논문발표 및 세션 참가
6.3(토)	[CEA 2023 참석] 세션 참가 [이동] 위니펙(12:10 출발) → 피츠버그(익일 14:35 도착)
6.5(월)	[귀국] 피츠버그(18:20 출발) → 인천(익일 05:20 도착)

4 활동 내용

□ “Economic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for Entrepreneurs in South Korea” 발표

- 2022년 KDI 기본과제인 “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방향”에 기반한 연구로서, 발표에 대한 세션 참가자들의 주요 피드백은 아래와 같음.
- 모형경제에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 도입시,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폐업이 증가하는데,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임. 이로 인한 효용의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고용보험 적자를 정부지출이 아닌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소득세 인상 등으로 메꿀 경우 사회 효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할 필요

□ “Are Working Hours Complements in Production?” by Lin Sao, Faisal Sohail, and Emircan Yurdagul

- 많은 거시모형에서 coworker 들의 근무시간은 서로 완전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고용주-고용인 매칭 데이터를 사용해 CES 생산함수를 추정된 결과, coworker들의 근무시간은 서로 불완전보완관계(elasticity of substitution = 0.69)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.
- 근무시간의 이질성이 임금불평등(wage inequality)을 상당히 설명함. 일례로, 임금의 성별격차 중 약 14%는 근무시간 차이에 기인함.

□ “The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and Aggregate Consumption Dynamics” by Bulent Guler, Burhan Kuruscu, and Baxter Robinson

- 자산 구성 및 자산 분포가 한계소비성향(MPC)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임.
- 자산 수익률의 이질성(return heterogeneity) 및 부동산 투자를 반영한 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약 0.29로 계산됨.
-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자산 수익률의 이질성으로 나타남.

- 자산 수익률의 이질성이 MPC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 14%p, 부동산 투자의 기여도는 약 7%p로 추산됨.

□ “The demand and supply of information about inflation” by Massimiliano Marcellino and Dalibor Stevanovic

- 인플레이션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된 연구임.
- 인플레이션 정보에 대한 수요는 구글트렌드에서 “인플레이션”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검색되는지로 측정됨.
- 인플레이션 정보에 대한 공급은 Wall Street Journal에서 “인플레이션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로 측정됨.
- 인플레이션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실제 인플레이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, 실제로 관찰되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가용한 정보(full information)를 반영한다는 가설을 기각함.
- 인플레이션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주요 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“Gender Differences in Career Progress among PhDs in Economics” by Nicole Fortin

- EconJobMarket (EJM)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학 박사과정 진입부터 학위 취득 후 커리어 과정 전반에 걸쳐 성별 격차를 살펴봄.
- 전체 경제학 박사과정에서 여성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, 상위 20개 학교의 여성 비중은 2013년 이후 오히려 감소함.
- 여성 경제학 박사는 보건, 노동, 공공, 개발경제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, 거시, 금융경제학의 여성 박사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.
-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위 50개 연구기관에 채용될 확률이 10% 높은 것으로 추산됨.
 - 남성 PhD는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졸업한 학교의 랭킹이 높음.
 - 남성 PhD에서 거시, 금융경제학 전공자 비중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침.
- 여성이 테뉴어 심사에 통과할 확률 및 부교수(associate professor)로 승진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낮음.
 - Tenure clock stopping policy (출산 휴가 기간에 비례해 테뉴어 심

사 시점을 늦추는 제도) 도입 후, 남성의 테뉴어 심사 통과 확률이 증가한 반면 여성의 테뉴어 심사 통과 확률은 오히려 감소함.